

## 地理科 教育 課程의 變遷

(舊韓末~日帝末)

黃 載 璣  
(地理教育科)

### I. 序 論

教育 課程이란 한 나라의 教育 理念이나 目標의 達成을 爲하여 選擇되고 配列된 일련의 學習 計劃이라 할 수 있다.

近代的인 의미의 地理科 教育이 始作된 舊韓末<sup>(1)</sup>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社會的인 變遷과 學問 自體의 發達에 따라 地理科 教育의 目標과 內容에도 그 간에 많은 變化와 發展이 거듭되어 왔다.

따라서 本研究의 目的은 舊韓末에서 부터 日帝末에 이르기까지의 地理科 教育 課程의 變遷 發達을 比較 分析하여, 急變하는 現代 社會에 對應하는 地理科 教育의 目標과 內容 具現에 참고 資料를 提供하고자 試圖된 것이다.

本研究의 對象은 우리나라에서 新教育이 始作된 舊韓末의 各級學校 教育 課程에서 부터 日帝末에 이르기까지의 全 地理科 教育 課程으로 하였다. 다만 同期間을 社會的 背景과 教育 課程 制定 또는 改訂 時期 등을 中心으로 (1) 舊韓末, (2) 日帝 初期, (3) 日帝 中期 (4) 日帝 末期로 時代 區分<sup>(2)</sup>하여 考察하였다.

研究 資料는 舊韓末의 關聯 官報, 朝鮮總督府의 朝鮮 教育令 및 同施行令을 中心으로 하였고, 그 외에 一般 文獻과 論文 등을 참고 하였다.

### II. 舊韓末의 地理科 教育 課程

우리나라 地理 教育 課程의 歷史的인 背景을 찾는다면, 그 始初는 新教育의 胎動期에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1885年 美國 北監理教 宣敎部가 設立한 培材學堂과 1886年 政府가 設立한 育英公院은 우리나라 最初의 學校로, 地理 歷史를 비롯한 新學問을 강의 하였다.<sup>(3)</sup>

(1) 李宣根, 韓國史(最近世編), 1961. pp. 220-221의 新教育 參照.

(2) 吳天錫, 韓國新教育史, 1964, p. 274.

(3) 培材中高等學校, 培材 80年史, 1965, p. 147 및 李宣根, 前揭書, p. 920-921.

1886년에 設立된 育英公院에 教師로 招聘된 美國人 H.B. Hulbert가 當時 著述한 “스민필지”(土民必知, 總 134面)는 우리나라에서 出刊된 最初의 近代的인 地理科 教科書로 볼 수 있으며, 그 內容은 主로 世界地理로, 序文에서 國際 理解를 爲한 教育으로 地理 教育의 重要性을 論하고 있다.

스민필지는 純 한글로 쓰여져 있으며, 그 構成을 보면, 메일장 지구(地球), 메일장 유로바주(歐羅巴 19個國), 메삼장 아시아주(亞細亞 14個國), 메스장 아메리카주(亞美利加 17個國), 메오장 아프리카주(亞弗利加 15個國) 등 各大陸別로 總 63個國에 걸쳐 記述하고 있다. 또 各章의 끝에는 學習 整理를 爲한 “뭇논말”이 있어 教育의 目的 意識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各國에 對한 記述 順을 보면, 大體로 位置는 數理的·地理的 位置를 區分 하였고, 以下에서 面積 地形 氣候 所產(植生 資源) 人口 種族 言語 國體 都城 貿易 國勢 國財 學業 風俗 軍事 宗教 道路 屬國 뭇논말 順으로 되어 外國에 對한 概觀과 理解를 돕게 되어 있다.<sup>(4)</sup>

위에서 본바와 같이 “스민필지”는 우리나라 新教育 胎動期에 發刊된 地理科 教科書로서, 當時의 韓國人들에게 地理的 概念을 世界로 擴大시키는데 있어 큰 役割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本書는 그 內容 構成이나 조직으로 보아 地理科 教育 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最初의 近代的인 教育課程으로 높이 評價된다.

이렇게 하여 시작된 新教育은 1894年 甲午更張 이후 科擧制의 폐지와 더불어 漢城師範學校를 비롯한 各級學校의 設立으로 本格的인 出發을 하게 되었고, 차제에 地理科도 各級學校에서 주요 教科의 하나로 課해 졌다. 다음에서 舊韓末 各級學校의 地理科 教育課程의 內容을 摘要하여 보자.

(1) 師範學校의 地理科 教育課程

1895年 官立 漢城師範學校 規則이 公布되고, 이후 韓日合邦까지 두차례에 걸쳐 師範學校 教育課程의 改正이 있었다. 光武 10年(1906年)에 공포된 師範學校令 및 同施行令에 의하면<sup>(5)</sup> 수업 年한은 本科 3年, 豫科·速成科·講習科 各 1年으로 되어 있고, 그 學年別 地理科 科目과 適當 時間數는 다음과 같다.

① 本科~주당 34시간중, 1學年: 本國 地理 及 地圖 描法 2時間, 2學年: 外國 地理 及 地圖 描法 2時間, 3學年: 前學年의 續 及 地圖 描法 2時間.

② 豫科~適當 32時間中 本國 地理·歷史가 3時間, 速成科~適當 34時間中 本國 及 外國 地理·歷史의 大要 3時間 등이다.

光武 10年(1906年)에 공포된 師範學校令 施行規則 第6條에는 16個 學科科目과 그 要旨를

(4) “스민필지” 1906年版 參考.

(5) 官報, 光武 10年 8月 27日 勅令 41號 및 學部令 20號.

정하고 있는데, 그중 地理科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다.

“地理는 人生에 適當한 事項을 知게 함을 爲主하고, 外國地理를 教授하라면 本邦과 重要 關係가 有한 諸外國의 地理를 尤極 詳明케 하고 其他 地理는 簡略히 하고 地文은 本邦 事實을 由하여 教授함이라.”

이상의 地理科 要旨 卽 地理科 教育科目은 첫째, 內容이 簡略하고 추상적이어서 當時의 發達되지 못한 地理學의 一面을 보여 주고 있으며 둘째, 地理는 “人生에 適當한 事項을 知게 함을 爲主로 한다”고 하여, 人間 生活에 必要한 常識을 알게하는 것을 地理 教育의 目標로 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보다 高位의 目標인 國家 社會의 發展이나 國際 平和에 對한 地理 教育의 功헌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는 그 時期가 韓·日合邦을 앞두고 日本 統監府의 영향력이 意識적으로 強하게 作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外國 地理는 重要 關係가 있는 外國을 中心으로 하라”고 함으로써, 이때부터 이미 日本에 對한 內容의 指導가 強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 隆熙 3年(1909年)에 改正 公布된 師範學校令 施行規則속의 地理科에 關한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地理는 지구 의 形狀·運動과 並히 地球表面 及 人類 生活의 상태를 理會케 하며 我國 及 諸外國의 國勢를 知게 하며 且 普通學校의 地理 教授하는 方法을 會得케 함으로써 要旨로 함. 地理는 本國 地理와 並히 我國과 重要한 關係가 有한 諸外國의 地理 大要를 教授하며 且 地圖의 描法과 地文 一班을 教授함이 可함.”

여기서는 1906년에 비하면 비교적 具體적이고 體系화된 內容과 師範學校로서의 特性을 다루고 있으나, 여전히 目標과 時代相은 별 變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 小學校의 地理科 教育課程

1895年 舊韓國 政府는 小學校令을 公布하고 學部大臣 命의로 學生 모집을 알리는 告示를 官報에 실었다. 當時의 小學校 教則 大綱 第6條에 있는 地理科 教育 課程은 다음과 같다.

“本國 地理 及 外國地理는 本國 地理 及 外國 地理의 大要를 授하여 愛國하는 精神을 養음을 要旨로 함. 教科에 本國 地理를 加하는 時에는 郷土의 地形方位等과 兒童의 日常 目擊하는 事物에 就하여 端緒를 開하고 漸進하는 法으로 本邦의 地形 氣候와 著名한 都會와 人民의 生業等의 概略을 授하고 地球의 形狀과 水陸의 分別과 其他 兒童의 理解하기 易하고 重要한 事項을 知게 함이 可함. 高等科에서는 本國 地理는 前項에 準하여 昭詳히 授하고 다시 地球의 運動과 晝夜 四時의 原由를 解케 하고 外國 地理는 大洋 大洲 五帶의 分別과 各大洲의 地形 氣候와 產物 人種과 及 日本 支那와 本邦의 關係에 重要한 諸國地理의 概略을 授함. 地理를 授함이 實地의 觀察에 基하고 卽 地球儀와 地圖 寫眞等을 示하고 兒童의 熟知하는 事로 比較하여 確實한 知識을 得게 하고 卽 尙古 歷史의 事實에 連絡케 함을 要함.”

本 小學校의 地理科 教育 課程은 앞에서 考察한 師範學校의 그것에 비하여 그 目標가 分

明하고 내용이 꼭 組織的이다. 즉, 첫째로 地理 教育을 통하여 愛國하는 精神을 기른다는 目標가 뚜렷이 定해져 있으며, 둘째로 地理 學習의 順序를 郷土에서 始作하여 本國・外國・全地球의 自然環境과 人類 生活 등으로 發展 段階에 맞는 概念擴大를 하고 있으며, 셋째로 學習 方法으로는 實地 觀察을 重要視하였으며, 넷째로 地球儀, 地圖, 寫眞 등의 새로운 시청각 教材의 使用을 規定하고 있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以上에서 指摘된 普通學校 教育 課程의 特色은 當時의 社會의 背景에 비추어 보면 지나친 理想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한 가지 예로 地球儀・地圖・寫眞 등의 사용이 과연 가능했겠느냐는 點과, 이러한 教育 課程을 運營할만한 教師가 있었겠느냐는 점이다. 따라서 當時의 先進 外國의 教育課程을 實情에 關係없이 그대로 모방해 놓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다음 1906년에 改正 分布된 普通學校令 施行規則에 나타난 地理科 教育課程을 보면 다음과 같다.

“地理는 地球의 表面 及 人類 生活의 狀態에 關한 知識 大略을 知得케 하며 本邦 及 隣邦 國勢의 大要를 理會케 하고 漸進하여 世界의 地勢 氣候區劃 交通 등의 概略 及 隣邦의 重要한 都會・物産・人情・風俗 등을 知게 함이라. 實地 觀察에 基因하여 地球儀・地圖・標本과 寫眞 등을 示하여 確實한 知識을 得게 호되 特別히 歷史 及 理科의 教授 事項과 聯絡케 함을 要함이라.

地理・歷史는 特別히 時間을 定치 아니하고 國語讀本에 所載한 바로 教授하느니 故로 讀本中 此等 教授 材料에 關하여는 反復 丁寧히 說明하여 學徒의 記憶을 明確히 함을 務함이라.”

본 教育課程의 內容은 一見하여 1895년의 그것에 큰 差가 없는듯 하나, 다음 몇가지 점을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전의 教育 課程에서 愛國하는 精神의 함양, 郷土와 人民의 生業에 對한 사랑 등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地理・歷史는 特別한 時間을 配定하지 않고 國語 讀本에 所載된 정도의 內容을 國語 時間에 반복 說明하는 것으로 그치게 한 점이다. 이러한 事實은 눈앞에 다가온 韓日合邦을 앞두고 愛國 愛郷하는 自主의인 民族 教育을 말살하려는 日本人들의 意圖가 잘 나타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뒤 1909년에 다시 普通學校 教育 課程이 改正公布되었으나, 1906년의 그것을 보다 노골적으로 規定하고 있을 뿐이다.

### (3) 中等 學校의 地理科 教育 課程

1900년에 公布된 中學校 規則에는 地理 歷史를 포함한 13個 學科目을 規定하고 있으나, 그 具體的인 內容 規定은 없다. 그러나 1906년에 公布된 高等學校令 施行 規則에는 간략하나마 地理科의 內容을 規定하고 있다. 즉,

“地理는 人生에 適當한 事項을 知게 함을 爲主하며 外國 地理는 本邦과 重要 關係가 有한 事를 詳 知케 하고 地文은 本邦의 事實에 由하여 其一般을 知게 함을 務함이라”고 하여 前記한 師範學校의 初期 教育 課程 內容과 同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시 1909년에 改正된 高等學校令 施行規則에서는 “地理는 地球의 形狀 運動과 並히 地球 表面 及 人類 生活의 狀態를 理會케 해야 處世上 必要한 事項을 知게 함으로써 要旨로 함. 地理는 本國 地理와 並히 我國과 重要한 關係가 有한 諸外國 地理의 大要를 教授하고 又는 地文의 一斑을 教授 함이 可함.”

이라 하여 改正 前보다 약간 具體化된 느낌이 있다. 그러나 中等學校의 教育課程 內容은 普通學校의 그것에 比하여 처음부터 빈약하고 目標 조차도 전혀 논의로 되고 있는 것이 特色이다. 이러한 事實은 보편화 되지 못하였던 中等教育이라 이를 소홀이 다루었거나, 또는 意圖의으로 弱化시킨 것으로 해석 되어 진다.

### Ⅲ. 日帝 時代의 地理科 教育 課程

1910년의 韓日合邦으로부터 1945년의 解放까지 36年間の 日帝 統治 期間中の 教育을 初期(教育에 反映된 植民 政治), 中期(融和 政策의 教育的 表現), 末期(激化된 皇國 臣民化 教育)의 3期로 區分하여<sup>(6)</sup> 논의할 수 있다.

#### (1) 日帝 初期의 地理科 教育 課程

日本이 韓國 教育 政策에 影響을 끼친 것은 統監府 時代부터라 할 수 있으나, 本格的인 植民地 教育 政策이 始作된 것은 亦是 1910년의 合邦以後로 보아야 할 것이다. 即 1911年 朝鮮總督府의 朝鮮教育會과 1912년의 教科用 圖書 檢定規程이 그것이다.<sup>(7)</sup>

이 때의 普通學校에서는 地理와 歷史는 特別한 時間을 定하지 않고 國語讀本과 日語讀本의 內容으로 教授하도록 規定하였으며, 이러한 地理 教育은 1921년까지 계속되었다. 다만 中等學校에 해당되는 4年制의 高等普通學校와 3年制의 女子 高等普通學校에서만 日本 地理와 地文學을 교수케 하였다.

이때 中等學校의 教科用 圖書 編纂方針은 心要하다고 認定하는 主要 科目은 總督府가 編纂하도록 하고 있었다. 即 修身, 國語(日語), 朝鮮語, 歷史, 地理, 法制 등은 主要 科目으로 總督府가 편찬하고 그 밖의 科學, 物理, 化學 등 科目은 愛國心이나 民族性에 關係가 없으므로 檢定으로 하였다.

여기서 總督府가 提示하고 있는 高等普通學校用 “日本地理” 教科書(日本語版) 편찬의 유의점을 살펴보자. ① 朝鮮을 모두 日本領土의 일부로서 他地方과 同列로 이를 叙한다. ② 朝鮮人 學生들에게 朝鮮 地方의 自然地誌 人文地誌에 關係시 상당한 知識을 갖도록 하는 것을 必要로 하고, 內地 臺灣 樺太 등에 關係서는 상세하게 보다는 오히려 概要를 確知시

(6) 吳天錫, 韓國新教育史, 現代教育叢書出版社, 1964, p. 274.

(7) 朝鮮總督府, 府令 第112號, 教科用圖書檢定規程 1912.

키는 것을 肝要로 한다. 그런고로 本書의 3분의 1로써 內地 臺灣 樺太 등을 叙하고, 약 3분의 2로써 朝鮮 地方에 詳해하고, 그 記事는 어느 것이나 産業에 重點을 둔다. ③ 일본의 領土, 人口, 行政, 軍備, 産業, 外交 등 大體의 知識을 빠지 않도록 힘쓰는 동시에 日本의 實力을 明白히 하는데 노력한다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취지에 의하여 편찬된 地理 教科書의 目次를 살펴 보자.

日本地理<sup>(8)</sup>

- |                  |                  |
|------------------|------------------|
| 第 1. 總論          | 第 2. 大日本帝國       |
| 第 3. 關東地方        | 第 4. 奧羽地方        |
| 第 5. 中部地方        | 第 6. 近畿地方        |
| 第 7. 中國地方        | 第 8. 四國地方        |
| 第 9. 九州地方        | 第10. 臺灣地方        |
| 第11. 北海道地方       | 第12. 樺太地方        |
| 第13. 朝鮮地方(一)(總說) | 第14. 朝鮮地方(二)(北部) |
| 第15. 朝鮮地方(三)(中部) | 第16. 朝鮮地方(四)(南部) |
| 第17. 朝鮮地方(五)(人文) | 第18. 關東及南滿洲      |
| 第19. 本邦地理總括      | 附 錄              |

地文學<sup>(9)</sup>

- |                |                   |
|----------------|-------------------|
| 第1編 地球         | 2節 地球와 月과 太陽과의 關係 |
| 1節 地球의 成因      | 4節 地表의 測定         |
| 3節 地球의 形狀 및 크기 | 6節 地 圖            |
| 5節 地球의 運動      |                   |
| 第2編 陸地         | 2節 陸地의 表面         |
| 1節 大陸과 島       | 4節 地殼의 構造         |
| 3節 陸地의 變動      |                   |
| 第3編 海洋         | 2節 海水의 溫度         |
| 1節 海底          |                   |
| 3節 海水의 運動      | 2節 海洋과 人文         |
| 第4編 空氣         | 4節 地文과 人文         |
| 1節 空氣의 諸現象     |                   |
| 3節 氣候와 人文      |                   |

附 錄

- |             |            |
|-------------|------------|
| 1. 地球의 形狀   | 2. 生物의 分布  |
| 3. 朝鮮의 正午通知 | 4. 地震計     |
| 5. 海水의 成分及色 | 6. 珊瑚礁의 種類 |
| 7. 大洋中の 深所  |            |

이상에서 본 地理科의 中等學校用 兩教科內容의 特色을 요약하면, 첫째로 日本地理는 오늘날의 地誌書와, 地文學은 自然地理 내지 地學과 그 內容構成이 흡사하며, 둘째로 그 분

(8) 朝鮮總督府, 日本地理, 1914.

(9) 朝鮮總督府, 地文學, 1914.

량이 人文分野 보다는 自然分野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셋째로 外國 地理에 대하여는 全혀 언급되고 있지 않으며, 넷째로 한국·대만·만주·화태 등은 表面上 完全한 日本 領土로 취급하고 있는 점 등이다.

內容構成의 이같은 特色은 그 당시의 地理學 自體가 갖는 背景이나 植民地 教育의 目標 등에 비추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外國 地理가 없는 것은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先進 諸外國에 對한 關心을 차단시키자는 것이며, 自然이 人文보다 많은것은 人文이 民族 意識이나 獨立 思想 고취에 관계깊은 部分이 많으며, 또 당시의 地理學 자체가 自然地理 中心 경향이 농후하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일제 初期의 地理科 教育課程은 植民 政治의 本格化를 그대로 反映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日帝 中期의 地理科 教育課程

1919年 3·1운동이 일어나고 抗日 鬪爭이 계속되자, 日帝는 武斷政治에서 文化政治를 표방하기 始作하였다. 그 일환으로 朝鮮總督府는 1922年 2월에 新朝鮮教育會를 公布하고 이제까지의 教育面의 差別 대우에서 오는 우리 民族의 不滿을 완화하려 하였다. 여기에 의하면 各級學校의 修業年限, 入學資格, 教育課程 등을 日人學校와 同一하게 하고, 大學教育과 師範教育을 本格化 시켰다. 1924年 京城帝國大學 豫科學生 모집이 그 예이다.

이때 地理 科目은 日帝初期와는 달리 普通學校에서 부터 獨立된 教科目으로 다시 규정되어 졌다. 당시의 普通學校 規定에 있는 地理科 教育課程을 보면 다음과 같다.

“地理는 우리 國勢의 大要를 理解시키고 地球의 表面 및 人類 生活의 狀態에 關한 知識의 일반을 얻게 하고, 겸하여 愛國心의 養成에 資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地理는 鄉土의 實勢에서 始作하여 我國의 地勢 氣候 구획 都會 產業 交通 등과 地球의 形狀 運動 등의 大要를 가르치고, 또 滿洲 地理의 大要를 알게 하고 겸해서 我國과의 關係에서 重要한 諸國의 地理에 關한 간단한 知識을 얻게 하여야 한다. 地理를 가르칠 때는 될 수 있는 한 觀察에 기초를 두고, 또 地球儀 地圖 標本 寫眞 등을 보여서 確실한 知識을 갖게 하고 特히 國史 及 理科의 교수 사항과 연락시키는 것을 요한다.”

또한 이러한 教育課程에 의한 普通學校 地理科 教科書의 편찬 방침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① 우리 國勢의 大要를 理解시키고 동시에 愛國心을 양성하고 產業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료에 특히 유의한다.

② 本邦 地理의 大要를 알게 하는데 적절할 資料를 輯錄하는 것은 물론, 조선에 대한 자료를 특히 많이 할 것.

③ 記述의 樣態는 國定에 준하지만 產業 交通 都會 등 內鮮 상호의 關係에 밀접한 자료 선택에 특히 유의함과 동시에 그외는 간략히 할 것.

④ 諸外國 地理에 關해서는 우리 국세를 아는데 必要한 자료를 주로 해서 前項에 준하여 記述할 것.

이상의 教育課程과 편찬 방침에 따라 당시의 著名한 地誌學者인 田中啓爾가 總督府의 의뢰를 받고 편찬한 “初等 地理書 卷1”과 “卷2”<sup>(10)</sup>의 內容構成을 보면 다음과 같다.

“卷 1”

- |             |          |
|-------------|----------|
| 1. 우리나라(日本) | 2. 朝鮮地方  |
| 3. 樺太地方     | 4. 北海道地方 |
| 5. 奥羽地方     | 6. 關東地方  |
| 7. 中部地方     | 8. 近畿地方  |

“卷 2”

- |             |             |
|-------------|-------------|
| 9. 中國及 四國地方 | 10. 九州地方    |
| 11. 臺灣地方    | 12. 南洋위임통치지 |
| 13. 關東州     | 14. 日本總說    |
| 15. 大洋洲     | 16. 아프리카洲   |
| 17. 南아메리카洲  | 18. 北아메리카洲  |
| 19. 아시아洲    | 20. 유럽洲     |
| 21. 日本과 世界  | 22. 地球와 表面  |

지금까지 新教育會에 의한 普通學校의 教育課程, 教科書 편찬 방침, 教科書의 內容構成 등을 살펴보았다. 그 結果를 요약해 보면, 教育課程의 特色은 地理科教育의 目標, 教材 教具의 선택, 교수법 등에 걸쳐 組織的이고 具體的인데 있다. 그러나 全體로 그 內容이 1895年 舊韓國政府가 公布한 小學校 教育課程과 거의 같은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事實은 첫째로 1895年 公布된 舊韓國政府의 교육과정의 當時의 社會的 여건을 無視한채 日本의 그것을 모방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한편, 둘째로 朝鮮總督府가 植民地 教育에 맞고 社會的 여건에 맞는 教育課程으로 規定한 것이 비로소 舊韓末의 그것과 같은 程度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日帝中期의 中等學校인 高等普通學校의 地理科 教育課程을 살펴 보자. 高等普通學校 規定 14條에 있는 要旨는

“地理는 地球의 形狀 運動 및 地球의 表面과 人類의 狀態를 理解시키고, 我國 및 諸外國의 國勢를 알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地理는 日本地理 및 我國과 주요 관계가 있는 諸外國의 地理大要를 알게 하고 朝鮮에 관한 事項을 상세하게 하고 또 地文의 일반을 교수한다.”

로 되어 있다.

또한 이에 따른 地理科 教授 要綱은

“自然과 人類生活의 情態를 理解시키고 兩者의 相互關係를 밝히고, 특히 人類가 自然을 利用 開發해서 세계 各地의 文化를 形成한바를 알게 하고, 특히 我國及 諸外國에 關한 競域 地形 氣候 生物 住民 產業 交通 都會 등의 概要에 關한 明確한 概念을 얻게 하고, 朝鮮地理는 郷土地理의 立場에서

(10) 慶尙北道教育會, 地理教育의 研究, 大邱, 1933. 參考.



될 수 있는 限 詳細히 教授하되 民族的 意識을 도발시키는 事項에는 세심한 주의를 할 것.”

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1935年 京城第一高等普通學校를 例로 地理科 時間과 教材 內容을 살펴보자.

- 1學年：週 1時間, 日本地理(帝國의 位置, 關東, 奧羽, 中部, 近畿)
- 2學年：週 2時間, 日本地理(中國, 四國, 九州, 北海道, 樺太, 臺灣, 朝鮮, 그 外에 總括)
- 3學年：週 1時間, 外國地理(大洋洲, 兩極地方, 아프리카洲, 남아메리카洲, 北아메리카洲)
- 4學年：週 1時間, 外國地理(아시아洲, 유럽洲)
- 5學年：週 1時間, 自然地理 및 人文地理概說

이상에서 考察한 中等學校의 教育課程은 目標, 教授法, 教材 教具 등에 關하여 전혀 언급이 없고, 보통학교의 그것에 비하여 극히 簡略하며, 教授 要綱은 특히 民族 意識의 도발에 세심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또한 그 內容構成은 日本地理 中心, 人文地理中心, 地誌中心 경향이 뚜렷하고 韓國地理가 극히 一部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러한 教育課程上의 特色은 普通學校의 境遇와는 달리, 感受性이 예민한 中等學校의 青少年들에게 愛國心이나 民族 意識와 發動을 最大限으로 억제하는 가운데 植民地 教育을 實施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으로는 1920年~1930年代는 地理學自體가 地人相關論을 中心으로하는 人文地理와 地誌 中心 思想이 풍미하던 때였으며, 젊은이들에게 外國에 關한 지나친 關心을 피하게 하고 오직 日本 帝國만이 最善 最強의 國家임을 과시하기 위하여 日本 中心의 地理教育을 했다고 보여진다.

### (3) 日帝 末期의 地理科 教育課程

1931年의 滿洲 事變, 1937年의 中日戰爭, 1941年의 太平洋 戰爭 등이 차례로 발발하자, 韓半島는 日本의 兵站基地로 되었다. 이에 따라 教育 政策도 그들의 侵略 戰爭을 뒷받침하는 手段으로 利用되게 됐다.<sup>(11)</sup> 즉, 當時의 南總督은 所謂 朝鮮教育의 三大綱領을 내세우고 韓國人을 “皇國臣民化”하는데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1939년에는 朝鮮教育令을 改正 公布하고 종래의 普通學校는 尋常小學校로, 高等普通學校는 中學校로, 女子高等普通學校는 高等女學校로 改稱하였다.<sup>(12)</sup> 1941년에는 國民教育令이 施行되어 尋常小學校가 다시 國民學校로 改稱되었다.

한편, 地理學 그 自體에도 크다란 變化가 招來되었으니, 소위 “나치즘”에서 由來된 地政學의 導入이 그것이다. 1940年 小牧實繁의 “日本 地政學 宣言”, 1941年의 “日本 地政學 協

(11) 吳天錫, 前掲書, 1964, p. 352.

(12) 張保雄, 일본통치시대의 지리교육, 군산교대, 논문집 4호, 1971.

會”創立이 있는 후<sup>(13)</sup> 本來의 地理學은 退色되고, 國家 活動의 理論的 기초로서의 國策學인 地政學의 탐구가 中心이 됐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朝鮮總督府가 提示한 教科用 圖書 編纂 一般 指針을 보면, ① 어떤 教科書를 不問하고 修身 國語 國史 地理 등은 皇國에 關한 教材를 풍부히 채택하여 忠君·愛國의 至情을 탐할 수 있게 해야 하며, ② 勤勞好愛, 興業治産의 精神 함양에 資할 수 있는 教材를 많이 발굴하여 實除化 시킬 것 등을 要旨로 하고 있다.<sup>(14)</sup>

이에 따라 1937年 總督府가 發行한 “初等地理, 卷一”의 “朝鮮地方” 教授때 특히 重視하도록 지적된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日本勢力의 大陸에의 前衛로써, 軍事交通上 그 位置의 價値가 重大하다.
- ② 合併以來 總督부가 苦心 經營하여 資源의 開發, 産業의 振興, 農業의 成長이 이루어지고, 특히 內地와 補充關係에 있는 産業과 國策上 意義가 큰 産業이 勃興하고 있다.
- ③ 産業은 農業을 本位로 하고 住民의 七割餘가 農業에 從事하고 內地에 對한 粟의 供給地로서 重要하다.
- ④ 交通은 日本과 大陸과의 連絡에 重大한 意義를 갖고, 水·陸·空의 交通路가 모두 日滿支의 연락에 重要하다.

위에서 보는것과 같이 철저히 전쟁수행에 필요한 식민지로서의 중요성을 교육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1941年 國民學校令의 施行과 더불어 국민학교 규정 제 7조 1항에 의하면, “國民科로서의 地理는 우리의 國土·國勢와 諸外國의 情세에 關하여 그 大要를 會得케 시켜 國土 愛護의 精神을 기르고, 東亞 및 세계에 있어서의 皇國의 使命을 자각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 7조 2항에는 “初等科에서는 生活 環境의 地理的 觀察에서 始作하여 우리 國土 및 東西를 中心으로 하는 地理의 大要를 가르쳐서 우리 國土를 바르게 認識시키고, 또한 世界地理와 우리 國勢의 大要를 가르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內容構成은 ① 生活環境의 地理的 觀察 ② 國土地理 ③ 東西地理 ④ 世界地理 ⑤ 우리 國勢로 되어 있다. 여기서 東西地理는 종래의 외국地理에 屬하던 滿洲 支那 시베리아 南洋 등을 포함하는 地域으로 所謂 東亞共榮圈의 諸地域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國民科로서의 地理는 政策科目의 하나로 그들의 侵略戰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중요시 되었고, 日本 중심의 세계관 정립에 그 사명을 다하여 왔다. 이는 1945年 終戰後 聯合軍 사령부가 修身 歷史와 함께 地理科의 授業 停止命令을 내린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그 性格을 明白히 알 수 있다.

1943年에 새로 公布된 中學校令에서도 國民學校에서의 地理科와 같이 國民科 地理로 目

(13) 山口貞雄, 日本を中心とする 輓近地理學發達史, 1943, pp. 231-239.

(14) 朝鮮總督府, 施政二十五年史, 1935, p. 905.

標와 內容을 構成 하였으며, 그 教授要目을 보면, “國民科는 我國의 文化 및 中外의 歷史·地理에 關한 事實을 습득시키고, 國體의 本의를 단명하여, 國民精神을 함양하여 皇國의 使命을 지각시켜 실천에 임함을 요지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當時의 地理科 教育은 皇國臣民으로서의 使命을 다하게 한다는 強力한 目標下에서 그들의 戰爭 遂行의 수단으로 利用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要約 및 結論

지금까지 舊韓末에서 日帝末에 이르는 期間中의 地理科 教育課程의 變遷 發達에 對하여 몇 개의 時期別로 追究해 보았다.

### (1) 舊韓末

1900年 以前에는 當時의 實情에 맞지 않을 程度로 目標가 뚜렷하고 內容이 充實한 教育課程이 規定되어 있었다. 그러나 1900年代에 들면서 韓日合邦을 앞둔 日本의 노골적인 干渉으로 地理科는 歷史科와 함께 民族 意識이나 獨立 精神을 고취하는 科目으로 규정되어 獨立 教科目에서 除外되었다. 즉, 外勢의 影響하에 地理 教育이 암흑기를 맞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2) 日帝初期

本格的인 植民 政策의 수행에 따라 普通學校에서 地理는 獨立된 教科目으로 다루지 않았으며, 中等學校에서만 “日本地理”와 “地文學”을 교수케 하였다. 韓國地理는 “日本地理”속에서 日本의 한 地方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 (3) 日帝中期

文化政策의 포방으로 地理 教育은 새로운 부흥기를 맞은 時期이다. 新朝鮮 教育令의 公布에 따라 普通學校에서도 獨立된 地理科가 부활되었다. 뿐만 아니라 보통학교에서 中等학교에 이르기 까지 目標·內容·教授法 등이 組織的으로 明示된 教育課程이 公布되었다. 그러는 가운데도 日帝는 地理 教育에서는 民族 意識을 자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도록 하고 있다.

### (4) 日帝末期

侵略戰爭의 격화로 教育은 戰爭遂行을 위한 手段으로 變質하였다. 따라서 國民科란 이름을 붙인 地理는 “皇國臣民化”를 위한 정책 科目으로 化하여 地理 教育 本來의 位置에서 유리되어 있었다.

지금까지의 研究 結果를 綜合해 보면, 첫째로, 當時의 地理科는 民族 意識과 愛國 精神을 유발하는 科目으로 指目되어 있었다. 둘째로, 그러한 結果로 政治的인 政策이 不當하게 強化되면 될수록 地理 教育은 그 本來의 位置를 벗어나 갔으며, 셋째로, 政治的인 政策이 옹계 強化되면 될수록 地理 教育은 그 本來의 位置에 가깝게 定着하고 있었다.

## Changes of Curriculum in the Education of Geography

Hwang, Jae-Ki

###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changes in curriculum of education of geography during colonial time by Japanese and to supply reference materials for consolidating and realization in objects and contents in curriculum of education of geography.

#### (1) The latest period of Yi Danasty

Before 1900 precise objects and satisfactory contents in curriculum were presented but they were not suitable to circumstances of those days. After 1900 Japan interfered Korean to colonize Yi Dynasty. Geographical subject was excluded in independent teaching subjects because geography and history seemed to incourage independent spirit and national consciousness. This period was dark age of Education of Geography.

#### (2) Early period of Japanese colonial time

Geography was not treated as independent subject in elementary school on the period. The textbooks 'Japanese Geography' and 'Earth Science' were only used in Middle School. Korean geography was included in 'Japanese geography' and Korea was treated as a part of Japanese region.

#### (3) Middl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time

Education of Geography had had new enlightenment by New Cultural Policy. Geographical subject was revived by 'New Korea Education Proclamation' which obtained systematic objects contents and teaching method they commend not to stimulate national consciousness in teaching of geography.

#### (4) Last period of Japanese colonial time

Educational policy was modified for The World War II. Therefore geography named national subject was moved to policy subject which made Korean people to be Japanese people and direction of geographical subject was differenciated from its original obj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1) For those period's geographical subject was re garded as subjects of incouring national consciousness and patriotism.

(2) The more geography of education was wrongly reinforced by political policy, the

more direction of geography of education was deviated from its original objects.

(3) The more geography of education was rightly encouraged by political policy, the more direction of geography of education was familiar to its original objects.